



사소한 질문에 과학으로 답하다
사소한 질문에-

랑가요계슈바어 지음

일상의 소소하고 생소한 질문

냄비 속의 경단은 왜 뽕뽕 돌까? 모기는 왜 웅웅거릴까? 일상의 소소하고 생소한 질문 108가지를 다룬 책이 나왔다. 독일의 지명된 과학 언론인 랑가 요계슈바어가 쓴 '사소한 질문에 과학으로 답하다'는 일상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모든 글의 구성은 "왜 그럴까?"라는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질문은 '달걀을 삶는 기술' '투명한 유리의 물리학' '기저귀의 흡수력'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저자는 관심만 갖는다면 질문은 어디에든 날라 있으며, 질문에 대한 중요성의 경중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저자가 첫 번째 사례로 든 '냄비 속의 경단은 왜 뽕뽕 돌까?'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물이 끓으면 냄비 바닥에서 올라오는 수포들이 만두 아래쪽에 달라붙어 만두를 쉽게 움직이게 한다.

〈에코리브르·1만7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떠도는 먼지들이-
손택수 지음

삶 내면 파고드는 서정의 힘은...

담양 출신 손택수 시인의 네 번째 시집 '떠도는 먼지들이 빛나다'가 나왔다.

서정의 전통을 견지하면서 도시적 삶의 애환을 그렸던 '나무의 수사학' 이후 4년 만에 펴낸 시집에서 시인은 순간 순간을 놓치지 않는 예민한 감각과 세밀한 관찰력으로 생의 뒷면을 차분히 응시한다.

시인의 시선은 곡진한 삶의 진경을 노래할 때 특유의 빛을 발한다. 지나온 삶의 이면들을 따듯하게 감싸 안으며 겸허한 마음으로 생의 편린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깊은 사유는 잔잔한 울림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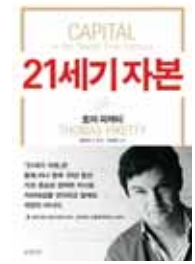
그의 시 전편에는 전라도 정서와 '뿌리 뽑힌 자'의 의식이 흐른다. 남루해도 빛나는 삶의 순간순간을 담아내는 절창의 시편, 삶의 내면을 파고드는 깊고 순정환 서정의 힘은 어쩌면 남도인만이 다다를 수 있는 시적 감수성인지 모른다.

〈창작과비평·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지음



'피케티 현상'이라는 말이 있다. 아니 '피케티 열풍'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피케티 현상'은 41세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는 말에서 나온 신조어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케티를 이렇게 극찬한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역작인 '21세기 자본'은 올해, 아니 향후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학 저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물론 한국에 부는 '피케티 현상'도 만만치 않다. 20일 피케티가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연을 하고 나면 '피케티 열풍'은 더욱 거세게 불 것이다. 물론 그의 주장에 대한 찬반 논란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탐욕스런 자본과 빈부격차에 항의하는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 모습. /연합뉴스

피케티의 핵심 주장은 파격적이다. 소수 부유층에 집중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글로벌 자본세와 최고 80%에 이르는 누진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피케티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이들은 그의 대안이 지나치게 직관적이며 한국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다.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불평등 모순이 선진국과 다르다는 이유다.

사실 이 책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발간되었을 때만 해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영어 번역판이 미국에서 출판되자 세간의 관심을 끌더니 급기야 베스트셀러에 진입하기에 이른

다. 단 한 권의 책으로 피케티는 '피케티 현상'을 넘어 세계 경제학계의 스타로 발돋움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피케티는 1971년 프랑스 파리 인근의 클리 시에서 태어났다. 22세에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과 런던 정경대에서 부의 재분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MIT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2000년부터 파리경제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벼락스타는 아니다. 오랫동안 역사적이고 통계적인 접근을 토대로 경제적 불평등 연구에 전착해왔다. 특히 국민소득에서 최상위 소득의 비중이 장기간에 걸쳐 변화한 양상에 초점을 뒀다.



토마 피케티 /글항아리 제공

일련의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이렇다. 소득과 부의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와 재정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물론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급진적인 해결책을 근거로 피케티를 마르크스주의자로 몰아세운다. 그러나 정작 그는 이러한 비판에 관심이 없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 일 뿐이다.

그는 '경제과학'이라는 표현보다 '정치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수학적 모형에 기반한 이론적 고찰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제들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과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글항아리·3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련의 경제학 책과 다르다. 그의 책은 간단한 수학 공식 3개만 이해하면 새로운 자본주의 이론을 무난히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다양한 문학작품과 영화, 드라마 등을 사례로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예를 들어 부의 불평등 추세를 비교할 때는 발자크 소설 '고리오 영감'을 불러온다. 법학을 공부해 출세하려는 가난한 청년 라스티냐크에게 현실주의자 보트랭은 이렇게 일갈한다. 거액의 유산 상속녀와 결혼해 1%의 자본소득자가 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듯 피케티는 '세습자본주의' 시대를 스케치하기 위해 문학작품까지 소환해 논리를 펼친다.

문학은 적재적소에서 분석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증거로 작용한다.

'피케티 열풍'과 맞물려 '자본론' 관련 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다시 읽기를 비롯해, 장하성 교수의 '한국자본주의', 경제학자 신승철의 '욕망 자본론' 등 자본주의를 주제로 한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2014년 가을, '피케티 열풍'에 출판계, 학계는 물론 정치, 경제계까지 휩쓸려 들어갈 추세다. 생산적인 찬반 논란을 촉발한다면 피케티 '21세기자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작이 아닐까.

〈글항아리·3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인간의 결정에 영향 미친 7가지 부분자아



이성의 동물

더글러스 T 켈릭 지음

하루 24시간 가운데 당신은 몇 번이나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때때로 옳았으며 한 치의 실수도 없었는가?

인생은 매 순간 순간 선택이 모여 이루어지는 시간의 총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매번 완벽한 선택을 했다고 자랑하기는 어렵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물론 그것의 결과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특정한 선택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강도, 폭행, 탈세, 살해, 모욕 등... 한순간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에 평생토록 오점이 남을 것이 분명한 대도, 어떤 이들은 어리석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에리조나주립대학 심리학과 더글러스 T. 켈릭 교수와 미네소타대학 마케팅 겸 심리학과 교수 블라디스 그리스케비시우스가 공동으로 펴낸 '이성의 동물'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숨겨진 놀라운 사실을 파헤친다.

저자들은 인간의 원시적 모습에서 지금의 결정시스템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질병과 자연재해를 피해 생명을 유지하고, 짝을 만나 번식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7가지 부분 자아를 탄생시켰고, 그 7가지 부분자아가 지금까지도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문제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선택의 범위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결과 또한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7가지 자아는 '자기를 보호'하는 자아, '질병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자아, '전에' 자아, '지위' 자아, '짝 획득' 자아, '짝 유지' 자아, '친족 보살핌' 자아 등이 다. **〈미디어 월·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명작의 가치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로 보는-

다이애나 뉴일 외 지음

"명작의 진정한 가치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불후의 걸작들을 파헤쳐 숨겨진 일화를 들려주는 '디테일로 보는 명작의 비밀' 시리즈가 출간됐다.

세계적인 명작들을 풀린 구멍으로 클로즈업 해 그 작품이 왜 위대한지를 이야기해 준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치나 숨은 일화, 화가가 사용한 양식과 기법, 색채와 색조, 모티프와 주제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해 명작의 가치를 전해 준다.

책은 국내 독자들의 관심이 높은 미술 사조인 인상주의, 르네상스 미술, 이집트 미술, 초현실주의까지 4권으로 구성됐다. 각 권마다 20점 씩 총 80점의 명작을 꿰뚫어본다.

특정 페이지에 구멍을 뚫어 다른 페이지에 있는 그림의 세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장치는 작품을 감상하는 독특한 재미를 선사한다. 4권 세트는 박스로 묶여 있어 선물용으로도 유용하다. **〈시공아트·세트 5만4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